



2015년 1월 26일

투자전략 Daily

자산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자전략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스몰캡 | 정훈석 ☎ 3276-6232



• KIS WEEKLY STRATEGY

Recovery, 회복에 대한 재조명 (2) : 액면분할과 ECB

• 이머징마켓 동향

유동성, 경기우려 완화에 이머징증시 강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뷰웍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 분석

타이어, 대림산업, KT&G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유가 증권	구분		1/16(금)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종합주가지수		1,888.13	1,902.62	1,918.31	1,921.23	1,920.82	1,936.09
	등락폭		-26.01	14.49	15.69	2.92	-0.41	15.27
	등락종목	상승(상한)	245(5)	437(5)	465(10)	385(7)	391(7)	460(7)
		하락(하한)	570(1)	343(1)	344(0)	416(0)	393(0)	331(2)
	ADR		92.97	94.33	99.44	96.03	94.87	96.17
	이격도	10 일	99.03	99.86	100.50	100.45	100.35	101.08
		20 일	98.49	99.24	100.01	100.18	100.22	101.02
	투자심리		40	5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99	281	281	301	343	363
거래대금	(십억 원)	4,008	3,583	3,637	4,401	4,598	4,596	
코스 닥	코스닥지수		577.41	577.94	582.27	584.34	578.42	589.31
	등락폭		-3.98	0.53	4.33	2.07	-5.92	10.89
	등락종목	상승(상한)	245(7)	437(14)	465(13)	385(19)	391(13)	637(22)
		하락(하한)	570(1)	343(2)	344(2)	416(1)	393(2)	337(0)
	ADR		106.63	109.33	115.46	110.95	107.65	112.74
	이격도	10 일	101.31	101.10	101.45	101.40	100.16	101.76
		20 일	104.27	103.95	104.21	104.13	102.69	104.12
	투자심리		40	5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30	441	486	538	647	500
	거래대금	(십억 원)	2,733	2,509	2,882	3,023	3,292	2,996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 가 증 권	매수	2,101.2	1,420.4	944.5	171.7	126.8	238.1	79.0	22.8	306.216	157.7
	매도	2,212.8	1,320.6	1,040.8	160.5	127.6	324.0	88.0	29.0	311.8	49.5
	순매수	-111.6	99.7	-96.3	11.2	-0.8	-86.0	-9.0	-6.2	-5.5	108.2
	1 월 누계	228.2	-609.6	-965.7	-716.8	75.7	42.8	-221.2	40.4	-186.5	1,347.1
	15 년 누계	228.2	-609.6	-965.7	-716.8	75.7	42.8	-221.2	40.4	-186.5	1,347.1
코 스 닥	매수	2,625.8	160.8	214.2	38.0	29.0	47.9	20.6	8.6	70.1	25.9
	매도	2,742.2	126.1	132.1	38.2	12.0	30.5	15.2	3.4	32.8	26.4
	순매수	-116.4	34.8	82.0	-0.2	17.0	17.4	5.4	5.2	37.3	-0.4
	1 월 누계	-172.8	-64.7	422.8	17.4	104.8	144.3	5.3	12.2	138.8	-185.3
	15 년 누계	-172.8	-64.7	422.8	17.4	104.8	144.3	5.3	12.2	138.8	-185.3

Recovery, 회복에 대한 재조명 (2) : 액면분할과 ECB

2015년 Target KOSPI	2,130pt
12MF PER	9.84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8.1%P

- ▶ 2015년 액면분할 이슈가 지속될 것이라 보는 이유 : 초고가주와 증권업종에 관심
- ▶ 액면분할 추진을 위한 거래소의 제도 개선 : 3월 주주총회 앞두고 관심 증대
- ▶ 투자전략 : ECB의 자산매입은 유럽 경제 회복의 초석을 닦아. 한국시장도 우상향

액면분할 이슈 지속될 듯 :
 증시활성화와 증권거래세 증
 대 등 두마리 토끼

■ 2015년 액면분할 이슈가 지속될 것이라 보는 이유

지난 주 20일(화) 거래소 주최로 상장법인 공시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조찬 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에서 최경수 이사장이 ‘기업가치 제고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초고가주의 액면분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장사 3~5곳은 이미 액면분할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발언하면서 액면분할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차적인 시장 반응은 미지근하다. ‘기업가치 자체가 똑같은데 100만원짜리가 10만원 짜리로 쪼개진다고 주가가 올라가겠느냐’, ‘1주당 가격이 비싸다고 매매를 안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개인 투자자들도 똑똑해졌다’, ‘기업들 입장에서 액면분할을 해야 할 명백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다.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일부 기업은 상속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 등 별볼일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번 액면분할 이슈가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액면분할의 1차적인 목적은 거래량 증대와 증시 활성화, 주주환원정책에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거래세도 증가, 자연스레 안정적인 세원(稅源)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액면분할은 어찌보면 우리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실제로 작년 6월 거래소에서 발간한 보고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액면분할 기대 효과’에 의하면 1) 액면분할 직후에는 거래대금 변화가 크지 않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규 개인투자자 수요 증가와 회전을 상승으로 거래대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2) 국내 시가총액 비중 1위인 삼성전자를 액면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 분할하면 하루에 약 1억원의 증권거래세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삼성전자가 5천원에서 500원으로 액면분할할 경우 세수 증대 효과

(액면분할 전 삼성전자의 증권거래세) 981,272,377원
- 1,368,180(최근 3개월 일평균 주가) * 239,070주(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량) * 3%
(액면분할로 증가하는 거래량) 239,070주 → 2,629,770주(2,390,700 + a)
- a = 회전을 증가로 인한 거래량 증가분 : 개인투자자 비중이 10% 증가한다고 가정
(액면분할 후 삼성전자의 증권거래세) 1,079,299,615원
- 136,818원(최근 3개월 일평균 주가) * 2,629,770주(최근 3개월 일평균 거래량) * 3%
(액면분할로 증가하는 거래세) 1,079,399,615원 - 981,272,377원 = 98,127,238원

자료 : 한국거래소

액면가 5천원이지만 주가는
100만원 이상인 종목들
: 아모레퍼시픽, 롯데제과,
롯데칠성, 삼성전자 등

■ 액면분할 추진을 위한 거래소의 제도 개선

거래소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실시간으로 액면가 5천원 기준의 환산주가를 발표하고 있다. 거래소는 공식적으로 ‘액면분할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22일(목) 종가 기준으로 액면 5천원 환산시 황제주(?)는 NAVER, 제일모직, SK C&C, 삼성화재 등이며 코스닥은 환산주가 공표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메디톡스, 쿠팡전자, 컴투스, 다음카카오, 게임빌이 해당된다.

주목할 점은 여기에 액면가가 5천원인데도 포함된 주식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249만원), 롯데제과(188만원), 롯데칠성(163만원), 영풍(143만원), 삼성전자(137만원), 아모레G(118만원), 태광산업(114만원), 오리온(105만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표 2> 액면 5천원 환산주가 기준 황제주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포함)

(단위: 원)

종목명	액면가	액면 5천원 환산	종목명	액면가	액면 5천원 환산
NAVER	500	7,650,000	다음카카오	500	1,475,000
제일모직	100	6,200,000	영풍	5,000	1,432,000
SK C&C	200	5,650,000	게임빌	500	1,395,000
메디톡스	500	3,610,000	삼성전자	5,000	1,378,000
삼성화재	500	2,900,000	이오테크닉스	500	1,304,000
SK 텔레콤	500	2,770,000	하이로닉	500	1,290,000
아모레퍼시픽	5,000	2,495,000	아모레 G	5,000	1,184,000
삼성에스디에스	500	2,275,000	태광산업	5,000	1,142,000
현대글로벌비스	500	2,275,000	삼성생명	500	1,120,000
한전 KPS	200	2,122,500	한전기술	200	1,078,750
롯데제과	5,000	1,887,000	오리온	5,000	1,055,000
엔씨소프트	500	1,815,000	코스맥스	500	1,010,000
쿠팡전자	500	1,730,000	무학	200	938,750
컴투스	500	1,710,000	슈피겐코리아	500	880,000
롯데칠성	5,000	1,639,000	선데이토즈	100	870,000

자료: 한국투자증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액면분할의 효용이 별로 없다. 그러나 20일(화)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액면분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자료를 통해 강하게 역설했다.

- ▲ 주가가 낮아지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개인투자자 참여가 늘어난다.
- ▲ 개인 투자자는 회전율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대된다.
- ▲ 유동성이 증대되면 환금성이 증대돼,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증대된다.
- ▲ 삼성SDS(액면 500원), 제일모직(액면 100원) 등 액면가가 낮아 개인 투자자 참여가 늘어난 종목들은 유동성 효과로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 ▲ 미국 애플사도 2005년, 2014년 주식분할을 단행, 단기간에 기업가치가 급증했다.
- ▲ 시총이 커지면 유상증자시 조달금액이 늘어나, 기업투자 확대에 유리하다.
- ▲ 개별주식 선물도 액면분할로 덩달아 유동성이 풍부해져 헤지거래가 용이해진다.
- ▲ 증시의 개인투자자 참여가 늘어나, 배당 확대시 국부 유출 논란이 완화된다.
- ▲ 특정 소수에 의한 주식매입이 어려워져 경영권 방어에 용이하다.

이러한 거래소의 주장에 동의하는 쪽과 동의하지 못하는 쪽이 크게 갈릴 것이다. 주가는 기업이익의 함수인데, 유동성 효과로 주가가 본질가치보다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이후 급락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거래소가 예로 든 삼성 SDS와 제일모직은 상장 직후 고점을 찍고 되려 큰 폭으로 하락, 곤혹스러워하는 투자자들도 많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
각종 제도개선 준비

그러나 일부 근거들은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고, 이를 토대로 거래소가 액면분할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점이 훨씬 중요하다.

- 1) 시가총액 가중방식이 아니라 주가평균 방식의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 : 기업규모 뿐만 아니라 거래량과 가격수준 등 투자자 접근성을 감안해서 대표주를 골라내 자연스럽게 액면분할이 유도한다.
- 2) 유동성 관련 관리종목 지정기준 강화 : 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당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 3) 그 외 변경되는 부분 : 액면가 5천원 기준 환산주가를 공표하고 오는 6월부터 마켓 메이커(Market Maker)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액면분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도입 시점이 올해 6월이라, 그 이전에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거래소가 직접 나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배포자료에는 관련 비용까지 친절하게 기재되어 있다. 주주총회 개최비용 1,500~2,000만원, 구주권 제출에 따른 명의개서 수수료 약 200만원, 액면분할 등기 비용 약 50만원, 변경상장 신청 수수료 100만원 등으로 이번 결산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 안건을 상정하면 추가 비용이 350만원 밖에 들지 않는다고 소개한다. 시장 참여자들의 시큰둥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번 3월 주주총회까지 고가 주식에 대한 액면분할 가능성이 자주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림 1] 6월 전에 액면분할 실시하기 위해서는 3월 정기주총 안건상정 필요



자료: 증권거래소

액면분할은 거래량 증가 이슈 : 증권업종에 영향

거래소의 주장은 사실 일정 부분 타당하다. 미국과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주식분할 사례를 보게 되면 주가 상승률도 좋지만, 사실은 거래량 증가율이 압도적이다. 이 때문에 액면분할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는 해당 기업의 주가 자체에도 우호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권 업종에 더 도움되는 이슈라고 본다.

〈표 3〉 일본 대표기업들의 주식분할과 월평균 거래량 변동률 (%)

종목명	분할일	3개월전	2개월전	1개월전	1개월후	2개월후	3개월후
소프트뱅크	05.12.28	71.6	26.5	-20.4	197.8	180.6	96.1
미쓰비시	07.10.01	89.3	-3.7	11.4	111,971.7	131,835.6	147,102.7
NTT 도코모	13.09.26	-5.7	20.2	-29.9	8,016.7	7,952.8	8,944.6
NTT	09.01.05	15.0	10.4	8.9	6,084.3	5,672.4	7,752.0
재팬토바코	12.06.27	8.3	-12.2	6.4	15,250.3	16,488.7	20,875.7
혼다자동차	06.06.27	22.6	-44.7	-16.0	78.4	31.6	47.5
스미토모미쓰이	09.01.05	-50.5	-43.4	-46.0	12,324.2	14,550.3	19,067.3
KDDI	13.03.27	-2.5	-2.6	-3.7	159.5	178.6	148.3

주 : 분할비율은 미쓰비시가 1000:1, 재팬 토바코가 200:1, NTT도코모/NTT/스미토모미쓰이는 100:1, 소프트뱅크는 3:1, 혼다자동차와 KDDI는 2:1

자료 : 증권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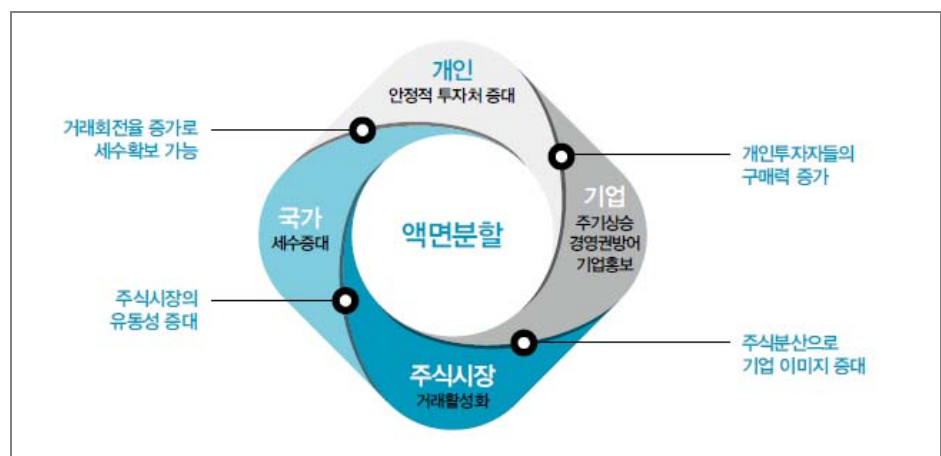
〈표 4〉 미국 대표기업들의 주식분할과 월평균 거래량 변동률 (%)

종목명	분할일	3개월전	2개월전	1개월전	1개월후	2개월후	3개월후
애플	14.06.09		-76.0	-65.4	1,212.9	1,359.5	
엑슨모빌	01.07.19	51.4	68.0	58.0	-0.4	3.9	19.2
구글	14.04.03	-13.2	-8.0	-1.2	51.3	-6.2	-13.8
마이크로소프트	03.02.18	30.5	53.0	1.3	40.2	36.2	27.7
버크셔해서웨이	10.01.21	483.4	612.0	470.7	10,897.2	3,229.1	1,639.2
존슨앤존슨	01.06.13	-6.2	-2.0	10.2	82.3	66.4	96.2
웰스파고	06.08.14	-32.3	-38.0	-46.6	133.5	92.6	144.2
GE	00.05.08	-7.9	-15.0	3.2	78.5	78.8	83.9
세브론	04.09.13	43.4	62.0	33.9	37.7	30.9	24.4
월마트	99.04.20	152.9	128.0	99.9	2.2	-29.3	-39.7

주 : 분할비율은 애플이 7:1, 버크셔해서웨이는 50:1, GE는 3:1, 이외의 회사들은 전부 2:1

자료 : 증권거래소

〔그림 2〕 액면분할 활성화에 의한 선순환



자료 : 증권거래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은
ECB의 양적완화

■ 투자전략 : 2015년의 Recovery, 회복에 대한 재조명

지난 주 ECB가 발표한 양적완화는 모든 면에서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었다. 사실 ECB의 QE 가능성은 몇 년간 수도 없이 거론됐지만 독일의 보수적 태도로 인해 진전이 없었고, QE에 나선다 하더라도 규모가 5,000억 유로에 그칠 것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시큰둥한 상태였다. 설상가상으로 스위스 프랑 페그 폐지로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ECB QE가 악재 아니냐는 의견까지 대두됐다.

그러나 드라기 총재가 호언장담했던 'ECB 자산 3조 유로'를 달성하려면 이번 QE는 필요불가결한 선택이었다. 2012년 초 시행됐던 3년짜리 LTRO의 1차 만기가 오는 29일 도래하는데다, 커버드본드나 ABS 유동성이 부족해 매입할 적격채권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 때문에 이번 QE의 효과는 더욱 극적으로 배가됐다.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는 다음과 같다.

▲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약 19개월간 매달 600억 유로씩 총 1.14조 유로의 자산매입을 실시하며 2~30년 만기 국채, ABS, 커버드본드가 포함된다.

▲ 내년 9월까지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인플레이션이 ECB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QE는 이후에도 지속된다.

▲ 해당국 국채매입은 총 발행량의 25%로 제한하나, 이를 매입하는 해당국 중앙은행이 손실을 전부 부담하지 않고 ECB와 20%(비율은 12 : 8)를 공동 부담하는 손실공유(Risk sharing)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단일통화체제 분열 및 취약국 디폴트와 유로존 탈퇴 등 테일 리스크(tail risk)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 ECB 자본금 비율대로 채권을 매입하게 되는데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신규 국채 공급량보다 매입량이 많기 때문에, 채권금리는 지속 하향 압력을 받게 된다.

▲ 국채 매입 등급은 투자등급 이상(현재 포르투갈까지 포함)만 가능하지만 그리스는 EU/IMF 협약 준수시 오는 7월부터 매입이 가능하다.

〈표 5〉 ECB 자본금 비율에 따른 채권매입 최대치 추정

	ECB 자본 납입비율(%)	1.14 조 유로 매입시 배정금액(십억유로)	2015년 신규공급액(십억유로)
독일	25.8%	294	147
프랑스	20.3%	231	187
이탈리아	17.7%	202	253
스페인	12.7%	145	142
네덜란드	5.7%	65	48
벨기에	3.6%	41	33
그리스	2.9%	33	-
오스트리아	2.8%	32	17
포르투갈	2.5%	29	13
핀란드	1.8%	21	11
아일랜드	1.7%	19	14

주: 자본비율은 비유로존 국가를 제외하고 재산정된 수치이며 월 매입액 중 국채는 450억 유로, 공공기관 채 50억 유로, ABS와 커버드본드 100억 유로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

자료: 국제금융센터 재인용, ECB, Santa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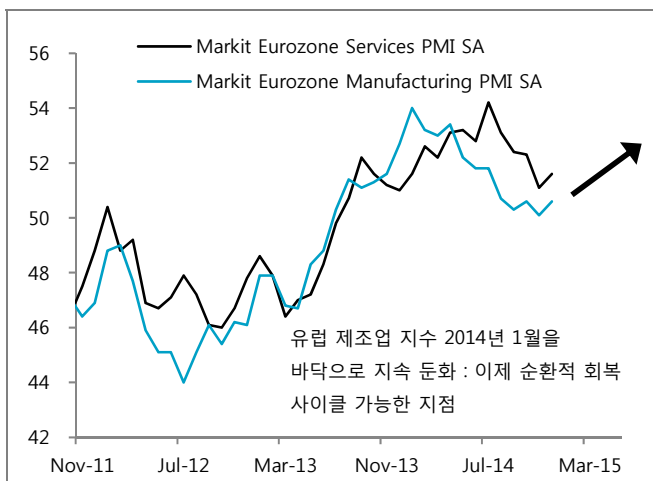
한국에 대한 부정론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점은, 올해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것

일단 예상을 상회하는 QE 발표로 유동성 효과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채권, 상품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개별주식과 ETF, 대출채권, 크레딧물 등 유럽시장 전반이 1차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로화 약세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ECB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한국시장의 경우 1) 원화 대비 유로화 약세로 수출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고 2) 달러화 강세가 심화되면서 신흥시장의 자금이탈 우려가 잔존하는 부정적인 측면과 3) 글로벌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유동성 장세 4) 유럽 경기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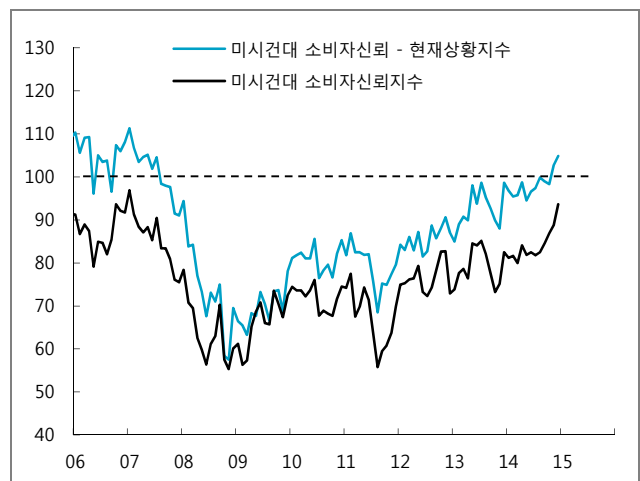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해는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유럽 모두 전형적인 회복 사이클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CB의 양적완화로 1년만에 유로존 제조업 PMI는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은 완전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KOSPI 1,900선은 장부가치 1배 수준이자 장기간의 주가 하락으로 비관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가격대이다. 반등세는 연장될 것으로 본다. 특히 선진국 경기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수출 대형주 중심 비중확대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3] 유럽 제조업 PMI 1년째 하락세



자료: Bloomberg

[그림 4] 미시건 현재상황지수 07년 후 처음 기준선 돌파



자료: Bloomberg

〈표〉 이번 주 주요 일정

26(월)	27(화)	28(수)	29(목)	30(금)
그리스총선(25일) 실적발표> 韓 LG화학, 삼성테크윈 美 마이크로소프트	美> 12월 내구재주문 (n/a, 0.5%, -0.9%) 12월 신규주택매매 (n/a, 45.0만, 43.8만) 1월 소비자기대지수 (n/a, 95.0, 92.6) 실적발표> 韓 LG전자, LG이노텍 美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코닝, 듀폰, 화이자, P&G, 록히드마틴, AT&T, US스틸, 암젠, 애플, EA, 야후, 3M	美> FOMC 통화정책회의 (n/a, 0.25%, 0.25%) 실적발표> 韓 SK하이닉스, 넥센타이어, LG디스플레이 美 보잉, ADT	유럽> 12월 M3 통화공급 (n/a, 3.5%, 3.1%) 1월 소비자 기대지수 (n/a, n/a, -8.5) 독일> 1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n/a, -0.2%, 0.1%)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NAVER, SK텔레콤, 이마트, LG상사 美 퀄컴, 페이스북, 다우케미컬, 허쉬, 블랙스톤, 타임워너케이블, 포드, 아마존, 구글, 비자, 비아콤	美> 4분기 예비 GDP QoQ (n/a, 3.0%, 5.0%) 1월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98.2, 98.2) 유럽> 1월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 (n/a, -0.4%, -0.2%) 日> 12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3%, 2.4%) 12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1.3%, -0.5%) 실적발표> 韓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 한국타이어, KT(31일), SK브로드밴드(31일) 美 제록스, 세브론, 마스터카드

정리: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KOSPI는 예상을 뛰어넘는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발표로 큰 폭으로 반등했고, KOSDAQ(+2.1%) 역시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로 마감했다. 국제유가(WTI)가 40달러 선에서 안착하며 불안감이 완화됐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소폭이지만 4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7원 상승한 1,084원을 기록했고 국고채 3년 물은 전주보다 3bp 오른 2.04% 기록했다.

유가 하락세가 진정되고 ECB 정책 발표 기대로 S-Oil(+15.3%), SK이노베이션(+13.3%), 롯데케미칼(+12.7%), LG화학(+11.4%), 대우조선해양(+11.2%) 등 정유/화학/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20일(화) 거래소 주최로 액면분할 관련 조찬 간담회가 개최되며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아모레퍼시픽(+10.0%), 삼성전자(+5.3%), 오리온(+5.5%), 롯데칠성(+2.3%) 등 액면가 5천원의 소위 '황제주'가 강세였다.

반면 현대차(-1.7%)는 4분기 실적 실망감으로 연말배당 3천원, 중간배당 검토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추가 하락했다.

지난 주에는 운송, 반도체 등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반면 기타금융, 조선, 건설 등의 EPS는 하향 조정되었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7.54	2.11	6.53	0.78	1.96	9.59	0.60
소재	2.39	-0.52	2.56	-0.26	-1.28	10.50	0.69
화학	3.50	0.11	2.74	-0.75	-2.67	10.57	0.79
금속 및 광물	4.66	7.76	8.04	0.20	1.91	12.07	1.20
산업재	0.53	-3.90	-4.24	-0.29	-4.28	14.82	0.98
자본재	0.74	-3.40	-3.69	-1.28	-5.57	14.13	0.89
건설	0.75	-4.64	-4.82	-1.33	-6.25	10.49	0.69
조선	6.01	-11.15	-6.28	-3.87	-10.06	15.78	0.54
상업서비스	8.57	1.01	2.06	0.92	0.89	17.01	2.36
운송	-2.27	-7.55	-8.42	5.59	8.26	18.70	1.74
경기소비재	-1.60	-0.07	1.23	-0.56	-1.64	8.33	0.98
자동차/부품	-3.38	-1.26	-0.31	-0.62	-2.03	6.09	0.78
내구소비재/의류	1.37	2.67	4.81	0.02	-0.14	21.04	2.83
소비자 서비스	3.04	10.22	10.80	-0.04	0.40	17.29	2.89
미디어	0.89	-1.86	0.45	0.10	-0.14	14.89	1.36
유통	-1.32	-4.70	-2.93	-0.88	-1.09	10.50	0.67
필수소비재	1.06	0.97	3.12	-0.40	0.46	17.02	1.65
음식료/담배	1.86	1.76	4.83	-0.48	0.46	16.05	1.47
생활용품	-2.23	-1.72	-2.82	0.04	0.43	23.65	4.80
의료	0.30	0.58	1.46	0.25	-5.45	18.56	1.58
제약/바이오	0.22	0.53	1.38	0.25	-5.45	18.56	1.58
금융	-0.15	-4.02	-0.96	-0.60	-4.25	9.95	0.68
은행	1.43	-4.61	-0.30	-0.55	-4.59	7.67	0.50
기타금융	-2.21	-2.44	-1.47	-9.84	-9.26	9.29	0.70
증권	-0.96	-2.58	0.45	-2.42	-9.44	12.82	0.80
보험	-2.39	-3.07	-2.07	0.02	0.06	13.31	1.03
IT	0.59	1.22	2.55	0.72	2.29	10.93	1.28
소프트웨어	-4.80	-2.33	-1.14	-0.03	0.39	29.14	4.69
하드웨어	0.74	12.30	11.65	0.03	6.10	18.40	1.10
반도체	1.93	1.66	2.98	0.96	3.61	9.23	1.15
디스플레이	-3.99	2.40	3.52	0.35	0.92	9.92	1.02
통신서비스	2.07	-2.52	1.68	-0.69	-2.81	11.47	1.09
유틸리티	5.39	-4.01	-0.80	0.45	-4.84	4.20	0.49

주 : MKF500 업종 분류 기준, 전주 목요일 종가 기준 업데이트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업종 중 상승률 상위는 항공(+6.5%), 인터넷(+5.7%), 트럭&리스(+4.4%), 컴퓨터(+3.6%) 그리고 상사(+3.5%) 등이 차지한 반면, 석탄(-2.5%), 포장&컨테이너(-0.6%), 수도(-0.5%), 엔지니어링&건설(-0.2%), 그리고 제약(-0.02%) 등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주 증시 전반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벤트는 22일 열렸던 ECB 통화정책 회의지만, 업종/기업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재료는 4분기 실적이었다. 유가 하락세로 꾸준히 강세를 보였던 항공 업종의 경우 유가 하락으로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재차 상승했다. 특히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실적 호조세가 주목할 만하다. 미국 국내선에 집중되어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건조한 수요는 미국 소비자 경기의 회복세를 반증하는 또다른 요소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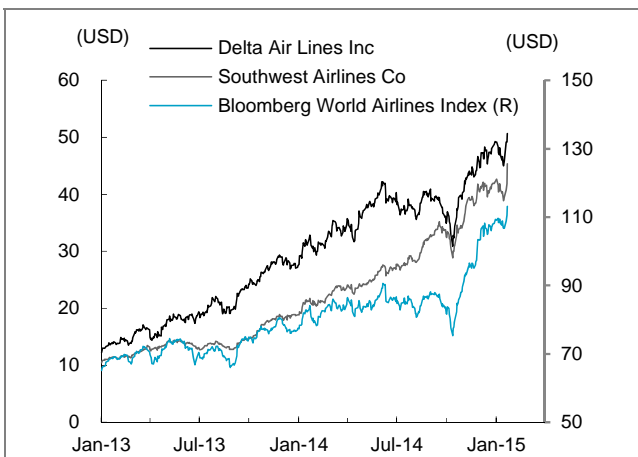
20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의 상승세 역시 눈에 띄었다.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했고, 구독자 증가율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의 구독자 증가율의 호조세로 넷플릭스의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커졌다. 이에 따라 1주일 동안 35% 상승세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저조한 실적으로 인한 급락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항공	6.51	석탄	-2.46
인터넷	5.74	포장&컨테이너	-0.57
트럭&리스	4.41	수도	-0.51
컴퓨터	3.63	엔지니어링&건설	-0.15
상사	3.51	제약	-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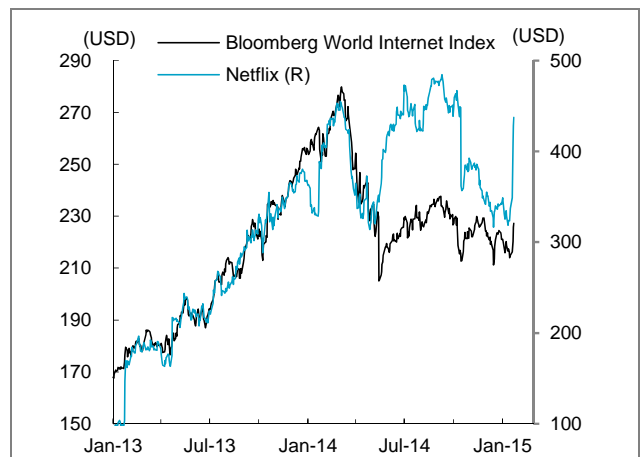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항공 지수와 주요 항공사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인터넷 지수와 넷플릭스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유출입

주식형 펀드의 경우 안전 자산 선호 현상 지속으로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은 5.6억 달러가 유입됐으나 신흥국 (Asia ex-Japan, GEM)은 27.7억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유출 기조가 지속되었다. 채권형의 경우 미국/글로벌 채권형 펀드는 3주 연속 순유입 추세가 유지됐으나 이머징 채권형 펀드에서는 7주 연속 순유출 기조가 이어졌다. 다만 하이일드 채권 펀드는 지난 주 소폭 순유입 이후 재차 순유출 전환했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 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1,964,418	1.7%	682.2	2,091	3,174
	Pacific	49,650	6.5%	-121.6	58	38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91,590	17.1%	-725.5	-4,263	-2,855
	Global Emerging	452,823	12.8%	-2,042.8	-4,529	-3,464
	Latin America	29,469	-	-273.3	-905	-843
	Europe/Middle East/Africa	42,723	-	-106.1	-221	-135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393,959	5,595	15,426	17,781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42,742	-1,211	-3,081	-2,757
	- EM 경화(\$) 채권	104,537	-415	-1,861	-1,776
	- EM 신흥국 통화 채권	93,560	-593	-1,089	-839
	- EM Blend 통화 채권	44,645	-203	-132	-142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103,060	1,573	6,349	6,449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55,864	-942	-3,318	-2,667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592,293	6,175	15,476	16,755
	- Municipal	368,116	773	2,803	2,416
	- Floating Rate	99,916	-868	-3,046	-2,083
	- Inflation Protected	50,648	151	189	77
	- Inter. Term Corp.	23,464	160	531	465
	- Inter. Term Funds	383,916	1,466	5,848	5,188
	- Inter. Term Gov.	26,536	344	350	517
	- LT Bond	6,796	56	217	183
	- LT Corp.	31,779	341	766	710
	- LT Gov.	19,466	399	863	842
	- MBS	77,336	570	2,048	2,013
	- ST Bond	200,847	48	-2,373	-1,539
	- ST Corp.	32,690	23	47	66
	- ST Gov.	37,402	508	-1,522	615
	- Total Return	233,381	2,203	8,756	7,286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478,423	19,877	45,095	21,843
	- MMF 채권펀드	3,685,907	18,668	42,475	19,237
	- Balanced Funds	792,516	1,210	2,620	2,606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유동성, 경기우려 완화에 이머징증시 강세

- ▶ 상해종합지수는 PMI지표 호재에 0.3% 상승, 주간단위로 10주만에 약세 전환
- ▶ 홍콩H지수는 1.8% 급등,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와 중국 선행지표 반등이 호재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1.4% 상승, 닷새 연속 강세를 보이며 연중 고점인 5,324p로 마감
- ▶ VN지수는 금융권 건전성 강화기대로 1.4% 상승,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 유지

상해종합지수 0.3% 상승
금융, 부동산, 통신 등의
업종들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3% 올라 3,352p로 마감했다. 주간단위로 0.8% 하락해 작년 11월초이후 10주 만에 약세로 전환됐다. 23일에는 장중 3,400p를 상향 돌파하기도 했으나 그 직후에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이다. 거래대금은 4,209억위안으로 전 날대비 200억위안 가까이 늘었다. 1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49.8로 시중예상을 넘어섰던 것이 가장 큰 호재였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보험료수입이 17.5% 증가했고 순이익은 1배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보험업종이 3.4% 급등했다. 증권사들의 연간실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증권업종도 1.8% 반등했다. 지난해 4분기에 토지거래가격이 24% 상승해 부동산업종에도 힘이 실렸다. 그 외에도 가정개인용품(2.3%), 통신서비스(0.8%), 은행(0.6%) 등이 강세였다. 반면에 소프트웨어(-3.9%), 미디어(-1.8%), 하드웨어(-1.7%), 전문서비스(-1.6%), 헬스케어(-1.6%), 음식료(-1.0%), 자본재(-1.0%), 자동차(-0.9%), 제약바이오(-0.9%) 등이 하락했다.

홍콩H지수 1.8% 상승
금융, 자동차, 통신, 전력 등
대부분 업종 강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는 1.8% 올라 12,260p로 마감했다. 주간단위로 1.5% 올라 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에 힘입어 초반부터 강세를 보였고 장중 강세가 유지됐다. 1월 중국의 선행지표인 PMI가 예상을 웃돌자 지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실적호재에 보험, 증권 등이 강세를 보였고 신재생에너지차 판매확대 기대로 비야디 주가도 3% 가까이 올랐다. 통신, 부동산, 전력, 석유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강세였다.

자카르타종합 1.3% 상승
금융, 건설 등 관련주 동반
상승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1%대로 상승했다.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고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성장 회복세 유지 기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전망, 위험자산 회피심리 약화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금융, 건설, 소재 등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한편 외국인은 연속 순매도세를 유지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1.4% 상승
금융, 에너지, 산업재 등
관련 업종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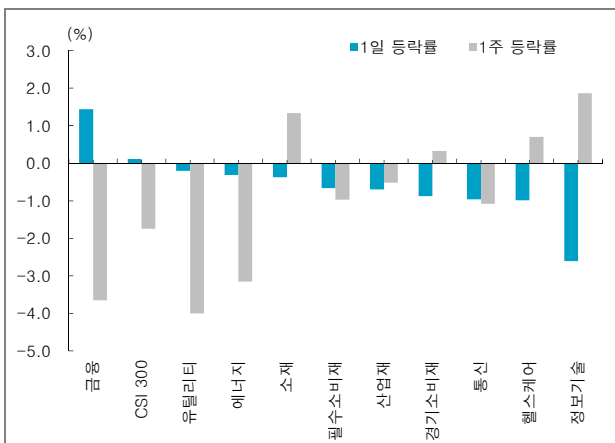
VN지수는 상승 폭을 1.4%로 확대했다. 이틀 연속 상승했고 580선을 회복했다. 올해 은행권 부실대출 처리 강화, 소형은행 인수합병 진행 가속화 등으로 금융권 건전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호재로 작용했다. 금융,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다. 한편 차익실현을 위한 외국인은 큰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다.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1월 HSBC 제조업 PMI 속보치 49.8(컨센서스 49.5, 전월치 49.6) 2014년 중앙소속 국유기업 매출과 순이익증가율 3.8%, 6.9%(2013년 10.8%, 4.4%) 과학연구원, 올해 연간 GDP성장률 7.2% 예상
인도네시아	재정부, 2014년 GDP 5.0~5.1% 성장했을 것
베트남	중앙은행, 2015년에 5~7개 소형은행 인수합병 계획
태국	1우러 16일, 외화나보유고 1573억달러 (직전치 1566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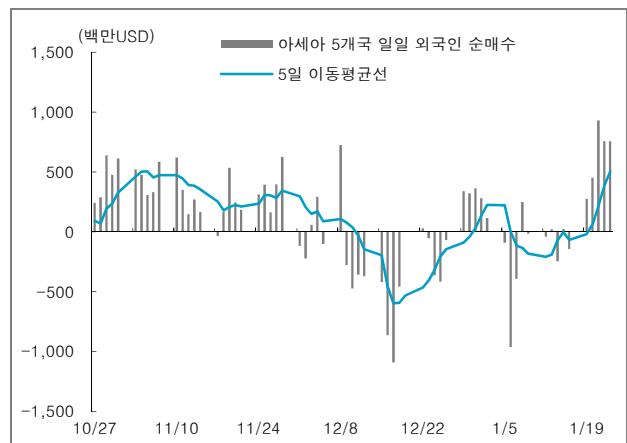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23(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3,351.76	0.25	-0.73	3.62	3.62
홍콩 H	12,260.06	1.77	1.52	2.30	2.30
중국 차스닥	1,697.29	-2.68	3.52	15.32	15.32
인도 SENSEX	29,253.54	0.85	4.02	6.38	6.38
인도네시아 JCI	5,323.89	1.35	3.41	1.85	1.85
태국 SET	1,585.92	1.64	4.49	5.89	5.89
베트남 VN	582.38	1.36	1.32	6.74	6.74
MSCI 이머징마켓	983.53	0.76	2.72	2.85	2.85

주: 23일 오후 6시 16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ECB 양적완화 호재 및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코스닥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

- 미국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양적완화(QE)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3대 지수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이며 마감. 1,940P선을 웃돌며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승세를 주도하며 1,936P로 마감. 코스닥은 장초반 매도세를 보였던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2% 가까이 급등, 590P선에 바짝 다가서며 2008년 7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결정과 장중 발표된 중국의 1월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난해 4분기 실적 기대감 및 중장기 성장성이 높다는 평가에 삼성SDI가 7% 이상 급등했으며, 세계적인 무선통신기업 퀄컴의 사물인터넷 사업 협력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와이솔이 상한가를 기록. '전민기적'이 중국에서 지난달 월간 기준 게임 매출 순위와 유저당 평균매출(ARPU)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웹젠이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컴투스의 글로벌 흥행작 '서머너즈워'의 중국 진출 소식에 컴투스는 물론 게임빌이 초강세를 보임. 아울러 중국 진출 모멘텀이 부각되며 게임주가 동반 강세를 보임. 또한,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결정에 국내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시장 회복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를 보임. 반면, 호반건설이 보유중인 지분 일부를 매도했다는 소식에 금호산업이 7% 가까이 급락했으며, 4분기 적자폭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대림산업이 급락하며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삼성SDI(006400) ▶125,000(+7.76%)	실적 개선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호적인 환율과 판광필름 수익성 개선, 삼성전자 스마트폰 물량에 따른 소형전지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며 급등세 - 올해도 판광필름 중심의 소재 부문 수익성 개선과 대형전지 적자 감소 그리고 적자사업인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생산중단에 힘입어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와이솔(122990) ▶9,310(상한가)	퀄컴 사물인터넷 사업 협력사 선정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기업 최초로 세계적인 무선통신기업 퀄컴의 IoT(사물인터넷) 파트너로 등록됐다는 소식에 상한가. 양사는 현재 실무자 간 제품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사물인터넷에 대한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사의 수혜가 예상되며, 주력사업인 스마트폰 부품 관련 매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있어 올해 실적 개선 기대
증권주	ECB의 대규모 양적완화 결정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1조1,400억유로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의 양적 완화를 결정.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동반 강세 - 교보증권(030610, +6.15%), 한국금융지주(071050, +5.86%), 동부증권(016610, +5.43%), 부국증권(001270, +4.65%), 미래에셋증권(037620, +4.34%), 대우증권(006800, +4.15%) 등 강세
게임주	중국 진출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민기적'이 중국에서 월간 기준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웹젠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전세계에서 약 2,000만건의 다운로드수를 기록한 흥행작 '서머너즈워'가 중국 안드로이드 마켓에 출시됐다는 소식에 컴투스와 게임빌이 급등하는 등 중국 모멘텀이 부각되며 게임주들이 동반 강세 - 웹젠(069080, 상한가), 컴투스(078340, +13.86%), 게임빌(063080, +13.26%), 이스트소프트(047560, +8.50%), 바른손이앤에이(035620, +7.04%), 위메이드(112040, +6.59%)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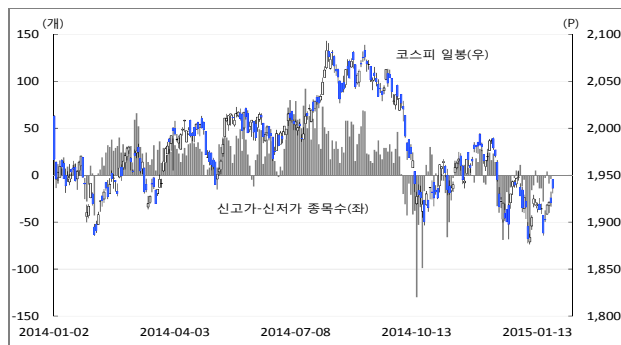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기대감이 지속되며 미국증시는 한주내 상승세를 보였으며, 국제유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
-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사흘 연속 지속되며 시장을 주도, 1,936P로 한주를 마감하며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로 590P선에 근접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며 티웨이홀딩스의 신고가 행진이 지속됐으며, 그룹 경영전략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된 신세계건설은 다음주 지난해 결산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일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를 기록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유가 증권	IT	기계	신성에프에이	2,110	38.4	산업재	운수창고	한진	63,100	5.2
	IT	유통업	한창	3,500	41.7	산업재	미분류	코아스	2,970	44.9
	IT	서비스업	유엔젤	6,550	23.8	산업재	건설업	신세계건설	36,700	18.0
	소재	철강금속	고려아연	442,500	3.6	필수소비재	음식료	오리온	1,052,000	5.5
	소재	유통업	고려포리머	1,700	14.5	경기소비재	전기전자	에이엔피	1,240	25.5
	산업재	비금속	티웨이홀딩스	14,450	5.1	경기소비재	화학	현대EP	8,930	15.2
	산업재	유통업	한샘	145,000	2.1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대한방직	41,700	10.9
	산업재	서비스업	에쓰씨엔지니어링	1,960	25.6	경기소비재	미분류	삼양통상	98,600	3.2
코스닥	IT	정보기기	현대아이비티	9,250	43.2	산업재	환경	자연과환경	1,780	18.3
	IT	디지털컨텐츠	이스트소프트	37,000	8.2	산업재	운송부품	중앙오션	2,015	34.8
	IT	도매	소프트센	2,450	18.9	산업재	종합건설	이테크건설	121,200	7.9
	IT	IT부품	나노스	13,650	9.6	산업재	기계장비	신흥기계	15,150	5.9
	IT	기계장비	토텍	16,000	19.4	건강관리	제약	메디톡스	378,000	3.2
	IT	반도체	테크윙	9,950	17.9	건강관리	제약	인트론바이오	20,600	17.0
	IT	IT부품	엠씨넥스	22,000	8.1	경기소비재	운송부품	넥센테크	4,015	1.6
	IT	반도체	에이티세미콘	1,900	10.5	경기소비재	도매	서울옥션	5,930	8.0
	IT	통신장비	코아크로스	1,370	5.4	경기소비재	방송서비스	씨씨에스	890	53.2
	소재	화학	뉴보텍	1,080	40.8	경기소비재	섬유의류	신라섬유	13,050	74.7
	산업재	환경	와이엔텍	3,75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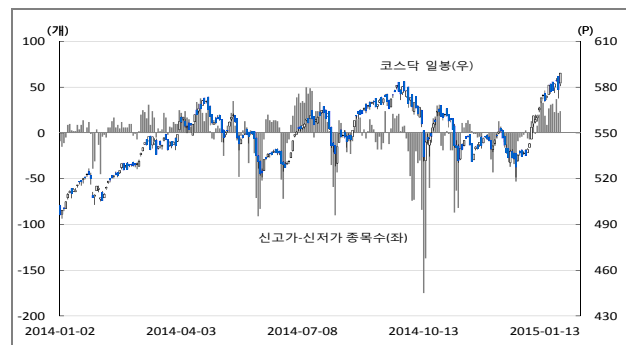
주) 상기 종목들은 1월 23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자료:Koscom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뷰웍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뷰웍스 (100120)	33,000 (-4.8)	34,6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사업이자 성장동력인 FP-DR(디지털 X-Ray시스템에 장착되는 디텍터의 한 종류)의 고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Retrofit(기존 아날로그 X-Ray 시스템에 FP-DR을 장착해 디지털로 전환) 시장에서 경쟁력을 주목할 필요 치과용 X-Ray 디텍터와 적은 광량에서도 고해상도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 TDI(Time Delayed Inspection) 센서가 탑재된 산업용 카메라 출시에 따른 신제품 효과 예상
삼영이엔씨 (065570)	9,070 (-1.4)	9,2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해안전과 직결된 선박전자장비 전문업체로 국내 유일의 상장업체로, 대형 선박에만 적용됐던 법령규제 장비가 중소형 선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어선 감척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내수시장은 항해안전 관련 규제 강화, 마린나 활성화 등으로 회복/재성장할 수 있는 여건 형성 중장기적으로 e-내비게이션 도입, 기존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수혜 예상
영원무역 (111770)	47,450 (-13.1)	54,6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글라데시 등 노무비가 저렴한 지역에서의 설비증설로 성장성 및 경쟁력 제고 주요 바이어들의 오더 확대, 품목 다각화, 수직 계열화와 다양한 고객군 확보 등으로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설비증설 효과 본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Peer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와이지엔터 (122870)	48,450 (+6.8)	45,3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인 라인업 확대, 기존 아티스트 공연 증가, 해외사업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세 지속 예상 중국 인터넷 업체인 텐센트(Tencent)와 콘텐츠 제작 및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로 중국사업의 가시성 향상. 또한 2014년 11월 휘닉스홀딩스 및 코드코스메 지분 인수로 화장품 사업 본격화 예상
모두투어 (080160)	27,250 (+9.2)	24,95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점유율 개선과 업황 턴어라운드 그리고 신사업 실적 기여 등으로 실적 개선 예상 여행수요의 우상향 트렌드가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2015년에는 세월호 사태 및 동남아 시위 등으로 주춤했던 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예상 인바운드 자회사(모두투어인터내셔널)의 이익 턴어라운드, 모두스테이(호텔 3개)의 이익 개선, 그리고 기타 자회사의 이익 개선 등을 연결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을 주목할 필요
파트론 (091700)	13,300 (+5.6)	12,600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사 고가 스마트폰의 전방카메라 화소수가 상향되고 있는 가운데 고객사의 2015년 상반기 플래그쉽 모델에는 기존 2MP에서 5MP로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됨 고마진 센서부문(온도, 적외선, 지문인식, 근접, 조도, 압력, 제스처, 가속도 등의 센서모듈 패키징)의 매출 증가가 안테나 부문의 제품믹스 악화를 상쇄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엔씨소프트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엔씨소프트 (036570)	183,500 (+1.7)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팜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76,500 (+10.7)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물'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603,000 (-2.4)	618,000 (1/2)	5,0834	600	427	25,640	2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NAVER (035420)	780,000 (+6.7)	731,000 (1/2)	3,328	1,119	773	25,935	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인 가입자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 모델 다변화로 라인 매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 -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하고 유행에 덜 민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은 여타 글로벌 SNS업체들 대비 상대적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폐쇄형 SNS인 밴드(BAND)도 글로벌 가입자 증가와 모바일 게임 출시로 성장 기대 				
삼성생명 (032830)	116,000 (+0.9)	115,000 (1/2)	17,694	657	1,341	6,707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 효율화의 성과 가시화 예상 - 삼성자산운용이 연결대상으로 인식됨에 따라 지배주주 기준 연결순이익은 증가와 경상적인 투자이익률 개선도 가능할 전망 -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초과자본 이슈가 있는 계열사들의 배당정책 변화 등에 힘입어 기업가치 제고 가능성 상존 				
SK하이닉스 (000660)	47,500 (-0.5)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AVER, LG생활건강, 삼성생명,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타이어: 판을 흔드는 무역환경 변화

■ 미국, 중국산타이어 관세 부활을 위한 7부 능선 통과

한국시간 22일 아침,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평균 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결했다. 지난 해 11월 상계관세 예비판결에(12.03%) 이은 조치다. 최종 판결은 7월에 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ITC는 이미 지난 해 7월 예비판결에서 만장일치로 관세부과를 지지한 만큼 중국산타이어에 대한 관세부활은 7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최종 부과될 경우 직전 관세 기간인 2009~2012년과 같이 중국산과 세그먼트가 겹치는 한국산이 가장 큰 수해를 본다.

■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 업체에 긍정적 - 커진 관세 폭, 절묘한 시기, 소급적용

우리는 세가지 측면에서 시장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이번 관세를 바라보고 있다. 첫 번째는 커진 관세 폭이다. 2009년에는 기본 관세 4%에 safeguard 관세 35%가 더해져 총 39%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번에는 기본 4%에 상계관세 12%, 반덤핑관세 28%를 더해 총 44% 관세가 평균적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두 번째는 절묘한 시기다. 금호와 한국은 각각 미국 조지아와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금호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은 2017년부터 생산이 개시돼 관세의 혜택이 집중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타이어가 올해 미국에서 출시하는 second-brand도 관세 부과와 맞물려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마지막은 소급적용으로인한 이른 수요증가다. 관세가 하반기에 최종 통과될 경우 상계관세는 2014년 12월부터, 반덤핑관세는 올해 2월부터 소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미국 상무부는 중국산 수출업체들에게서 현금 보증금을 거두도록 세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수출상들의 부담이 즉각 늘어나 국내 업체에 대한 수요증가 효과가 상반기부터 조기에 나타날 전망이다.

■ 국내 타이어 업체의 리레이팅을 이끌 것, Top pick 넥센타이어

관세 부과는 2012년부터 이어진 타이어 업계의 저성장, 고마진 구조를 뒤흔드는 큰 변화다. 이러한 무역환경 변화의 최대 수혜주는 넥센이다. 미국 매출 비중이 크고(25%) 관세부과의 어두운 측면인 중국 내수시장의 경쟁심화에 덜 노출 돼 있기 때문이다(5%). 한국과 금호도 미국 내 신공장에 힘입어 혜택이 예상되나 중국 내 경쟁심화로 수혜가 일부 상쇄될 전망이다(중국매출비중 한국 18%, 금호 14%).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대비 꾸준히 프리미엄을 받아왔으나 최근 디스카운트로 전환됐다. 미국의 관세부과를 계기로 국내 타이어 업체가 리레이팅 될 것이다. 넥센타이어를 업종 내 최선호주로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대림산업(000210)

매수(유지)

목표가: 67,000원(하향)

종가(1/22): 56,700원

해외 불확실성 vs 체질 변화의 과정

■ What's new : 3,900억원의 추가원가 반영으로 어닝 쇼크

영업손실 2,230억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 사우디 'Elastomer', 'Rabigh2', 'Isocynates' 2,240억원, 'MFC' 1천억원, 쿠웨이트 'SHFP' 에서 660억원의 충당금을 반영했다. 2013년부터 해당 현장에 투입된 추가원가는 8,860억원에 달한다[표2 설명 참조].

■ Positives : 비건설 사업의 선전, 발생 가능한 비용의 충실한 반영

DSA(사우디 법인)의 영업적자 2,530억원을 비롯해 건축 원가율이 97.5%에 달하는 등 건설 원가율이 악화됐다. 2014년 분양율이 거의 100%에 달했음을 감안하면 국내 원가율 악화는 의외다. '중구 황학' 과 마곡 지구 장기 미분양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700억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발생 가능한 비용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보여진다. 비건설 부문의 선전은 지속됐다. 유화 영업이익은 전년과 유사했고 대림C&S는 81% 증가한 100억원을 기록했다.

■ Negatives : 끝나지 않는 해외 충당금

지난 3분기 3,370억원의 추가원가를 반영하며 4분기 1,200억원의 영업이익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4분기에도 3,900억원의 충당금이 반영됐다. 단지 전 현장을 다시 리뷰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과거 공기 지연이 3~4개월이었다면 이제 8~12개월로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간 제한된 지역에서 과도한 발주가 집중되며 리소스 조달이 어려워진 측면이 크다. 해답은 현장 종료 외에는 없는데 해당 문제 현장의 종료 시점은 2015년 하반기~2016년으로 예상돼 한동안 이익 가시성 확보가 어렵다.

■ 결론 : 이익 회복까지 장시간 필요, 그러나 근본적 변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건설사

2015년 영업이익을 68.6% 하향한다. 2016년 ROE 6.5%를 감안해 목표 PBR을 0.6배로 적용, 목표주가를 24.7% 하향한다. 2015년 영업이익 가이드는 3천억원인데 사측은 DSA 흑자를 전망하는 반면, 우리는 영업손실 1,500억원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2013~ 2015년 평균 DSA 원가율을 147.7%로 추정하며 건설 정상화는 2016년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반복된 손실에도 불구하고, 매수의견을 유지한다. 성급한 턴어라운드 기대보다 밸류에이션에 근거한 것이다. 1) 부채비율 137.2%, 순차입금 4,984억원의 최상위 재무비율, 비건설 순자산만 9,520억원에 달하는 자산가치, 2) 해외 손실은 비단 대림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며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한국 EPC의 환경 속에서, 디벨로퍼 전환을 위해 호텔/발전/임대 등 대안 찾기를 시작한 유일한 건설사라는 점, 3) 현재 PBR은 0.5배로 유동성 리스크가 불거졌던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점 때문이다. 신뢰가 깨진 이상, 단기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겠으나 근본적인 체질 변화의 과정을 기다려줄 가치가 있는 자산주로 판단한다.

	4Q13P				증감률		2014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091	2,556	22.3	2,475	22.3	4.8	9,191	9,725
영업이익	72	(223)	(409.3)	88	적지	적지	106	381
영업이익률(%)	3.4	(8.7)	-12.2pt	3.6	0.3pt	4.4pt	1.2	3.9
세전이익	49	(309)	(730.3)	92	적지	적지	126	399
순이익	49	(361)	(836.1)	72	적지	적지	83	291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T&G(033780)

매수(유지)

목표가: 115,000원(유지)

종가(1/22): 78,400원

PM 가격 정책으로 본 주가 rock bottom은?

■ 4Q14 실적, 전반적으로 무난

KT&G가 14일에 요약 실적을 공시한 데 이어 22일 IR 행사를 통해 세부실적을 공개했다. 연결 실적은 15일 보고서 (‘KT&G: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11% 상회’ 보고서 참조)에서 추정했던대로 세금인상 전 가수요가 동사 제품에 쏠리면서 호전(영업이익 +28.9% YoY)되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127.5% 증가해 면세 점 등 법인매출 증가 효과가 가시화됐다. 특이사항은 담배 수출 가격이 원화약세에도 불구하고 17.3% 하락했는데, 이는 광고선전비 중 일부가 매출 차감 항목으로 회계 기준이 변경한 영향이 대부분이다. 또한 우리의 예상보다 영업외수지가 악화된 것은 인수 종속기업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관련 영업권 상각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가수요로 인한 개선을 폄하하더라도 홍삼의 실적 개선이나 비용 통제, 보수적인 회계기준(인수 종속기업 매입 금액의 2/3 기상각 등) 선택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점유율 하락 우려

동사 주가는 연초의 ASP 인상으로 시장 축소 악영향 상쇄 기대가 높아져 반등하다 최근 다시 주저 앉았다. 경쟁사의 가격 인하로 인한 점유율 하락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주가가 rock bottom에 근접했다고 평가한다. 최대 경쟁자인 Philip Morris(PM)의 연초 가격 정책을 보면 그들도 KT&G의 점유율이 최대 8%p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지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12월초대비 20% 하락해 있기 때문이다. 점유율이 8%p 떨어지면 동사 EPS는 20% 감소한다.

■ PM이 보는 KT&G 점유율 하락 최대치는 8%p

PM은 사실 1월에 말보로 가격을 KT&G의 주력 가격대인 4,500원이 아닌 4,700원으로 책정했었는데, 이를 보면 점유율 상승으로 인한 물량 증가율을 20% 미만으로 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격을 4,700원에서 4,500원으로 낮추면 제조사 ASP는 18.2% 하락하기 때문이다. PM과 BAT 제품간 대체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가정하면 양사의 가격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따라서 가격 인하 시 점유율 획득 비율도 비슷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결국 PM의 점유율 획득은 4%p를 넘지 못하고 BAT 또한 4%p, 결국 KT&G의 점유율 하락은 8%p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우리가 추정한 2015년 KT&G 점유율은 전년대비 약 4%p 하락한 58%로 가정되어 있다. 추가로 4%p가 더 하락한다면 EPS는 10% 가량 하향될 수 있다.

■ 2월부터 BAT 가격 올리면 KT&G 점유율 하락폭은 매우 제한될 것

3일전 언론에 다시 보도된 것처럼 2월부터 BAT가 보그의 가격을 현재 3,500원에서 4,000원대로 올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적자 매출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현재 4,500원인 던힐의 가격도 전년대비 ASP 하락(4,500원이면 ASP - 11.3% YoY, 4,700원이면 ASP +8.5% YoY)이 없는 4,700원으로 올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BAT는 2월에 가격을 올릴 것을 지속적으로 예고해 왔다. PM은 아직 가격 인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4,700원이었던 가격을 BAT의 가격 인하 이후에 4,500원으로 조정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뒤따라 가격을 올릴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PM 입장에서 단기에는 20% 이상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KT&G가 가격 인하 혹은 마케팅을 확대할 경우 물량 증가가 축소되고 비용이 증가해 업계의 수익구조가 모두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쉬운 ASP 정상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경쟁사의 가격 인상은 당연히 동사 점유율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 모든 것이 최악인 현재가 매수 적기

동사의 예상 PER은 2015년과 2016년이 각각 10.0배, 11.1배이다. 2015년 실적에서 일회성 이익을 제외할 경우 PER은 13.4배이다. 이는 Global peer 평균인 17.1배와 15.8배대비 각각 21.3%, 29.6% 낮은 수준이다. 과거 3년간 동사의 PER은 12.3~13.8배였다. 전일 주당 3,400원의 배당을 공시했고, 배당 정책이 '최소 전년수준 이상의 주당 배당금 유지' 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배당수익률은 최소 4.3%이다(주당 3,400원 가정 시). 가수요 제거, 연초 금연 열풍, 경쟁사의 가격 인상 지연으로 최악의 시점에 있는 현재가 주가 바닥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면세품 가격 인상과 금연 효과 완화로 매출액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며, 경쟁사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질 것이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3,985	1,036	738	5,869	(9.0)	1,214	13.8	8.3	2.0	14.9	4.0
2013A	3,822	1,013	571	4,533	(22.8)	1,191	16.4	7.7	1.8	11.0	4.3
2014F	4,113	1,172	806	6,399	41.2	1,324	11.9	7.0	1.8	14.8	4.5
2015F	4,169	1,325	987	7,839	22.5	1,493	10.0	6.2	1.7	17.0	4.7
2016F	4,119	1,232	888	7,055	(10.0)	1,409	11.1	6.4	1.6	14.3	5.1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1월 2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6(금)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88.13	1,902.62	1,918.31	1,921.23	1,920.82	1,936.09
	등락폭		-26.01	14.49	15.69	2.92	-0.41	15.27
	등락종목	상승(상한)	245(5)	437(5)	465(10)	385(7)	391(7)	460(7)
		하락(하한)	570(1)	343(1)	344(0)	416(0)	393(0)	331(2)
	ADR		92.97	94.33	99.44	96.03	94.87	96.17
	이격도	10 일	99.03	99.86	100.50	100.45	100.35	101.08
		20 일	98.49	99.24	100.01	100.18	100.22	101.02
	투자심리		40	5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99	281	281	301	343	363
	거래대금	(십억 원)	4,008	3,583	3,637	4,401	4,598	4,596
코스닥	코스닥지수		577.41	577.94	582.27	584.34	578.42	589.31
	등락폭		-3.98	0.53	4.33	2.07	-5.92	10.89
	등락종목	상승(상한)	245(7)	437(14)	465(13)	385(19)	391(13)	637(22)
		하락(하한)	570(1)	343(2)	344(2)	416(1)	393(2)	337(0)
	ADR		106.63	109.33	115.46	110.95	107.65	112.74
	이격도	10 일	101.31	101.10	101.45	101.40	100.16	101.76
		20 일	104.27	103.95	104.21	104.13	102.69	104.12
	투자심리		40	5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30	441	486	538	647	500
	거래대금	(십억 원)	2,733	2,509	2,882	3,023	3,292	2,996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101.2	1,420.4	944.5	171.7	126.8	238.1	79.0	22.8	306.216
	매도		2,212.8	1,320.6	1,040.8	160.5	127.6	324.0	88.0	29.0	311.8
	순매수		-111.6	99.7	-96.3	11.2	-0.8	-86.0	-9.0	-6.2	108.2
	1월 누계		228.2	-609.6	-965.7	-716.8	75.7	42.8	-221.2	40.4	-186.5
	15년 누계		228.2	-609.6	-965.7	-716.8	75.7	42.8	-221.2	40.4	-186.5
코스닥	매수		2,625.8	160.8	214.2	38.0	29.0	47.9	20.6	8.6	70.1
	매도		2,742.2	126.1	132.1	38.2	12.0	30.5	15.2	3.4	32.8
	순매수		-116.4	34.8	82.0	-0.2	17.0	17.4	5.4	5.2	37.3
	1월 누계		-172.8	-64.7	422.8	17.4	104.8	144.3	5.3	12.2	138.8
	15년 누계		-172.8	-64.7	422.8	17.4	104.8	144.3	5.3	12.2	138.8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5,307	건설업	-22,144
증권	2,550	유통업	-18,128
기계	1,346	금융업	-13,575
현대모비스	9,702	대림산업	-25,577
삼성SDI	8,670	NAVER	-17,787
SK이노베이션	7,287	삼성물산	-15,506
S-Oil	5,269	TIGER 200	-14,545
LG생활건강	5,267	기아차	-9,40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15,606	운수장비	-13,975
전기,전자	13,456	유통업	-10,246
제조업	11,059	철강및금속	-8,439
현대모비스	18,419	현대차	-15,128
삼성전자	10,358	삼성물산	-13,773
SK이노베이션	9,896	기아차	-10,404
아모레퍼시픽	9,388	현대글로벌	-6,894
SK텔레콤	7,585	대림산업	-6,23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309	전기,전자	-6,624
운수장비	926	통신업	-3,803
유통업	594	화학	-620
POSCO	1,047	KODEX 레버리지	-7,748
현대모비스	1,028	삼성전자	-5,637
두산	908	KT	-3,028
LG화학	805	SK이노베이션	-1,603
대우조선해양	643	금호석유	-1,00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8,567	운수장비	-15,069
서비스업	3,922	유통업	-4,050
제조업	3,880	전기가스업	-1,990
한화생명	8,383	KINDEX200	-21,924
삼성SDI	4,150	기아차	-7,309
제일모직	2,938	삼성물산	-6,044
삼성증권	2,730	현대위아	-3,980
LG유플러스	2,616	한전기술	-3,367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제조업	25,392	운수장비	-39,913
서비스업	21,578	유통업	-38,535
증권	18,337	건설업	-24,095
KODEX 레버리지	130,646	삼성물산	-42,031
현대모비스	45,753	대림산업	-40,009
SK이노베이션	19,921	기아차	-37,532
삼성SDI	19,050	현대차	-26,040
제일모직	15,393	KT	-18,150
아모레퍼시픽	9,850	TIGER 원유선물(H)	-16,158
현대건설	9,596	하나금융지주	-14,002
대우조선해양	9,409	현대중공업	-11,520
삼성증권	8,472	LG화학	-10,853
한화생명	7,063	한국전력	-10,35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50,806	운수장비	-85,900
금융업	40,550	전기,전자	-11,699
화학	39,251	은행	-5,351
LG화학	30,497	삼성전자	-56,043
KT	24,341	현대모비스	-39,737
SK텔레콤	20,810	기아차	-22,880
하나금융지주	18,173	대우조선해양	-10,172
SK하이닉스	18,001	현대위아	-8,199
한국전력	17,611	현대건설	-7,923
삼성물산	15,724	삼성전자우	-7,880
삼성에스디에스	15,548	POSCO	-7,493
신한지주	12,409	삼성엔지니어링	-7,197
대림산업	11,036	SK이노베이션	-5,97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8,237	방송서비스	-1,619
반도체	6,667	도매	-930
제약	3,243	소프트웨어	-751
게임빌	5,302	CJ오쇼핑	-1,537
서울반도체	3,698	리드코프	-1,160
다음카카오	3,263	KG이니시스	-842
위메이드	2,953	디엔에프	-577
메디톡스	1,713	평화정공	-507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11,953	방송서비스	-2,269
디지털컨텐츠	10,244	음식료,담배	-787
제약	4,192	금속	-520
다음카카오	11,953	CJ오쇼핑	-2,029
게임빌	6,469	OCI머티리얼즈	-1,393
메디톡스	3,931	에이블씨엔씨	-1,012
위메이드	2,532	코나아이	-883
CJ E&M	2,408	바텍	-85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1,752	출판,매체복제	-292
제약	1,178	방송서비스	-147
반도체	596	사업지원	-146
게임빌	1,561	이라이콤	-306
셀트리온	803	에스엠	-289
한국사이버결제	680	동양이엔피	-228
OCI머티리얼즈	659	디엔에프	-214
서원인텍	469	효성오앤비	-15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13,431	오락,문화	-865
화학	1,038	금융서비스	-560
제약	975	방송서비스	-462
컴투스	9,162	알서포트	-711
게임빌	3,224	제이콘텐트리	-532
엑토스소프트	772	CJ오쇼핑	-517
이오테크닉스	672	파라다이스	-276
코나아이	593	원익IPS	-23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38,531	방송서비스	-7,458
인터넷	24,810	의료,정밀기기	-1,054
제약	9,834	운송장비,부품	-929
다음카카오	24,603	CJ오쇼핑	-5,977
게임빌	21,580	GS홈쇼핑	-1,526
컴투스	10,631	바이오싸인	-1,195
메디톡스	6,069	실리콘웍스	-1,136
위메이드	5,827	코나아이	-1,131
서울반도체	3,703	세코닉스	-959
솔브레인	3,647	디엔에프	-873
파트론	2,784	알서포트	-871
토비스	2,527	유비쿼스	-865
바이넥스	1,971	에이블씨엔씨	-854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5,842	화학	-2,000
오락,문화	5,796	반도체	-1,873
인터넷	5,688	종이,목재	-1,357
다음카카오	5,675	솔브레인	-2,729
파라다이스	4,082	CJ E&M	-2,206
컴투스	3,419	메디톡스	-1,697
셀트리온	2,740	다날	-1,601
파트론	1,793	삼성엘엔에스	-1,422
GS홈쇼핑	1,673	오스템임플란트	-1,183
게임빌	1,592	성우하이텍	-1,003
디엔에프	1,388	이오테크닉스	-954
미디어플렉스	1,307	바이오랜드	-729
웹젠	1,245	다산네트웍스	-70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유니드	12 일	삼성카드	17 일
LG유플러스	11 일	대한항공	12 일
LG하우시스	11 일	일성신약	11 일
코웨이	10 일	하나금융지주	8 일
아모레퍼시픽	10 일	동아타이어	7 일
아모레G	9 일	LG화학	7 일
KPX케미칼	8 일	TIGER 200	7 일
KODEX Japan	8 일	삼성물산	6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위메이드	9 일	매일유업	9 일
메가스터디	8 일	KTH	5 일
이트레이드증권	8 일	SBS콘텐츠허브	5 일
솔브레인	5 일	에스에프에이	5 일
태웅	5 일	에이테크솔루션	5 일
토탉	5 일	비에이치아이	5 일
서울반도체	4 일	동국산업	4 일
오스템임플란트	4 일	아미노로직스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444,115	TIGER 200	103,082
삼성전자	193,700	한국전력	92,344
현대모비스	65,246	LG화학	70,235
아모레퍼시픽	42,807	삼성물산	56,859
SK이노베이션	33,079	하나금융지주	47,313
대우조선해양	33,017	KT	41,733
삼성SDI	29,509	LG전자	37,819
S-Oil	26,443	KB금융	37,634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다음카카오	30,747	이오테크닉스	6,535
위메이드	24,518	보성파워텍	5,290
게임빌	14,566	셀트리온	3,737
솔브레인	8,135	에스에프에이	3,113
액토즈소프트	7,578	CJ오쇼핑	1,963
서울반도체	7,535	웹젠	1,603
토비스	7,494	엠게임	1,488
CJ E&M	7,007	에스넷	1,201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조업	25,392	18,681	44,073
증권	18,337	1,556	19,894
보험	3,932	10,860	14,792
삼성SDI	19,050	10,435	29,485
삼성에스디에스	5,754	15,548	21,302
삼성생명	1,178	10,287	11,465
KT&G	4,966	5,298	10,264
LG유플러스	3,673	5,655	9,328
대우증권	3,149	4,960	8,109
코웨이	2,659	3,230	5,889
삼성전기	2,380	1,218	3,598
KODEX 200	548	2,769	3,317
NH투자증권	2,230	1,019	3,249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38,531	5,842	44,373
인터넷	24,810	5,688	30,498
제약	9,834	3,575	13,409
다음카카오	24,603	5,675	30,278
게임빌	21,580	1,592	23,172
컴투스	10,631	3,419	14,049
파트론	2,784	1,793	4,577
파라다이스	111	4,082	4,194
셀트리온	696	2,740	3,436
바이넥스	1,971	809	2,781
토비스	2,527	152	2,679
차바이오텍	1,855	432	2,287
리움쿠첸	1,797	95	1,89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TIGER 원유선물(H)	42 일	삼성엔지니어링	19 일
하나금융지주	23 일	에스원	15 일
대림산업	16 일	SK네트웍스	14 일
KT	13 일	대한제강	13 일
기아차	10 일	대우조선해양	12 일
POSCO	10 일	GS건설	11 일
고려제강	9 일	현대미포조선	11 일
동아타이어	9 일	팬오션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에이테크솔루션	43 일	오스템임플란트	17 일
젬백스	7 일	메가스터디	12 일
STS반도체	6 일	SK브로드밴드	10 일
KH바텍	6 일	한진피앤씨	7 일
동국산업	5 일	SK컴즈	6 일
포스코엡텍	5 일	유진기업	5 일
태광	5 일	심텍	5 일
평화정공	5 일	태광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126,976	삼성전자	-186,262
현대차	-106,933	SK하이닉스	-72,603
TIGER 200	-101,445	기아차	-56,210
현대위아	-65,086	NAVER	-37,537
KT	-52,155	대우조선해양	-27,645
삼성물산	-50,932	GS건설	-26,132
KODEX 인버스	-44,891	삼성전자우	-24,461
현대글로비스	-43,292	현대미포조선	-22,701

KOSDAQ			
기 관		외 국 인	
CJ오쇼핑	-15,279	KG이니시스	-12,544
KH바텍	-13,113	솔브레인	-5,531
이오테크닉스	-10,631	오스템임플란트	-4,375
파라다이스	-8,383	GS홈쇼핑	-3,906
코오롱생명과학	-3,685	에스엠	-3,058
SBS콘텐츠허브	-3,403	KG모빌리언스	-2,768
KG모빌리언스	-2,302	다날	-2,261
OCI머티리얼즈	-2,254	인터플렉스	-2,204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39,913	-85,900	-125,813	
건설업	-24,095	-4,169	-28,264	
전기,전자	-6,022	-11,699	-17,721	
기아차	-37,532	-22,880	-60,412	
삼성전자	-2,204	-56,043	-58,247	
현대위아	-9,464	-8,199	-17,663	
삼성엔지니어링	-2,778	-7,197	-9,976	
POSCO	-1,358	-7,493	-8,851	
삼성전자우	-565	-7,880	-8,445	
현대미포조선	-1,892	-4,804	-6,696	
삼성중공업	-1,143	-4,033	-5,176	
GS건설	-1,102	-3,875	-4,978	
KODEX 인버스	-1,870	-1,773	-3,64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송장비,부품	-929	-1,287	-2,215	
기타서비스	-71	-154	-225	
자동차판매	-21	-6	-26	
CJ E&M	-119	-2,206	-2,325	
OCI머티리얼즈	-566	-523	-1,089	
유비쿼스	-865	-211	-1,076	
다산네트웍스	-330	-700	-1,031	
바이로메드	-451	-311	-762	
KH바텍	-253	-350	-604	
로만손	-401	-151	-552	
유진테크	-422	-110	-531	
바른손이앤에이	-5	-471	-477	
STS반도체	-21	-431	-45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3	18,381	
현대차	82	13,686	
LG디스플레이	285	10,001	
대우조선해양	386	7,146	
KODEX 200	269	6,764	
삼성엔지니어링	183	5,672	
기아차	113	5,649	
삼성에스디에스	24	5,48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컴투스	33	5,716	
다음카카오	25	3,721	
CJ E&M	62	2,471	
다날	114	1,264	
파라다이스	50	1,239	
서울반도체	43	882	
넥슨지티	55	807	
네오위즈게임즈	30	690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621	6,367,190	
POSCO	4,609	1,281,229	
현대중공업	10,240	1,075,205	
SK하이닉스	22,188	1,042,857	
현대차	5,370	902,160	
KODEX 200	32,383	814,108	
LG전자	10,642	657,692	
신한지주	14,517	640,90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다음카카오	5,437	801,920	
셀트리온	16,824	660,361	
CJ E&M	604	551,342	
파라다이스	10,169	247,607	
위메이드	1,349	246,144	
서울반도체	11,999	245,376	
컴투스	1,300	222,222	
이오테크닉스	851	111,014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보험	4,697	증권	-1,310
서비스업	2,858	의료정밀	-1,252
화학	1,817	금융업	-1,211
한화생명	4,176	KODEX 200	-1,846
기업은행	1,156	미래산업	-1,269
삼성엔지니어링	1,103	하나금융지주	-1,267
SK네트웍스	926	현대증권	-829
삼성중공업	865	대우조선해양	-736
한진중공업	745	슈넬생명과학	-677
삼익악기	743	KB금융	-675
우리종금	597	한진해운	-651
SH에너지화학	553	LG디스플레이	-597
두산인프라코어	509	현대글로벌비스	-52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반도체	2,767	운송장비, 부품	-329
IT부품	1,168	섬유, 의류	-309
통신장비	1,066	일반전기전자	-291
심텍	535	하림	-314
다음카카오	472	웰크론	-254
이지바이오	460	HB테크놀러지	-245
테스	455	보성파워텍	-186
다우데이터	422	차이나그레이트	-179
미디어플렉스	387	인터파크	-164
우리이티아이	337	지앤코	-134
알에프텍	323	씨앤케이인터	-129
키이스트	320	성우하이텍	-123
원익IPS	301	한국선재	-120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외국인	-609.6	-609.6	238.0	-25.6	32.0	70.4	61.5	99.7
기관계	-965.7	-965.7	-11.1	162.8	170.5	-158.7	-89.3	-96.3
(투신)	42.8	42.8	-92.1	39.7	-8.6	-3.0	-34.2	-86.0
(연기금)	-87.6	-87.6	-117.7	42.4	3.2	-77.8	-90.9	5.4
(은행)	40.4	40.4	15.2	7.4	8.3	1.4	4.4	-6.2
(보험)	75.7	75.7	-1.4	10.8	33.7	-22.4	-22.7	-0.8
개인	228.2	228.2	-564.2	-143.8	-211.2	-11.4	-86.3	-111.6
기타	1,347.1	1,347.1	337.3	6.5	8.7	99.7	114.2	108.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1/16(금)	1/19(월)	1/20(화)	1/21(수)	1/22(목)
KOSPI	1,825.7	1,997.1	2,011.3	1,888.1	1,902.6	1,918.3	1,921.2	1,920.8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5,711.8	15,659.9	15,148.4	15,526.2	15,498.2
(증감액)	1,996.5	3,611.7	334.1	-1,215.7	-51.9	-511.5	377.8	-28.0
(회전율)	34.2	26.7	29.9	42.9	38.9	43.0	47.8	50.9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1,172.6	-89.1	-247.9	292.4	-269.9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5,295.0	5,316.8	5,344.2	5,359.3	5,389.4
미수금	1,877.0	1,241.0	929.0	156.1	137.5	150.6	148.1	132.2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6(금)	1/19(월)	1/20(화)	1/21(수)	1/22(목)
전체 주식형	79,774	168	168	-49	0	102	-14	198
(ex. ETF)		-275	-275	-22	-26	-17	-16	-35
국내 주식형	64,056	486	486	-19	48	109	9	199
(ex. ETF)		37	37	9	22	-10	5	-34
해외 주식형	15,719	-318	-318	-30	-48	-7	-23	-1
(ex. ETF)		-312	-312	-30	-48	-7	-21	-1
주식 혼합형	10,377	-91	-91	-5	-13	-10	4	-12
채권 혼합형	27,918	494	494	144	101	69	25	16
채권형	71,348	569	569	96	30	180	-22	79
MMF	98,627	16,231	16,231	2,875	0	163	-1,085	-13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한 국	-563	-563	2,363	-24	29	65	57	92
대 만	426	426	2,143	283	271	547	380	-
인 도	782	782	662	68	213	346	-	-
인도네시아	-231	-231	35	-56	-27	17	-20	-
태 국	-519	-519	121	-31	-25	25	43	-
남아공	-198	-198	109	-67	-64	117	-5	-
필리핀	491	491	129	6	-6	48	80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	1/16(금)	1/19(월)	1/20(화)	1/21(수)	1/22(목)	1/23(금)
회사채 (AA-)	2.43	2.33	2.36	2.35	2.36	2.30	2.33
회사채 (BBB-)	8.26	8.18	8.21	8.20	8.21	8.23	8.19
국고채 (3년)	2.10	2.01	2.04	2.03	2.05	2.06	2.03
국고채 (5년)	2.28	2.10	2.13	2.12	2.15	2.18	2.13
국고채 (10년)	2.60	2.34	2.39	2.36	2.37	2.41	2.33
미 국채 (10년)	2.20	1.84	1.84	1.79	1.87	1.86	-
일 국채 (10년)	0.33	0.24	0.20	0.22	0.25	0.32	-
원/달러	1,099.30	1,077.30	1,078.00	1,088.40	1,083.40	1,084.90	1,084.10
원/엔	920.30	920.14.66	918.31	918.33	922.28	925.05	924.37
엔/달러	119.45	117.08	117.39	118.52	117.47	117.28	117.28
달러/유로	1.22	1.17	1.16	1.16	1.16	1.15	1.15
DDR3 1Gb (1333MHz)	1.34	1.33	1.33	1.33	1.32	1.32	-
DDR3 2Gb (1333MHz)	2.21	2.21	2.21	2.21	2.21	2.21	-
NAND Flash 16Gb (MLC)	2.18	2.14	2.14	2.14	2.14	2.14	-
CRB 지수	233.24	224.79	224.79	219.51	221.78	218.88	-
LME 지수	2,907.6	2,754.5	2,727.6	2,752.5	2,789.8	2,757.9	-
BDI	782	741	739	753	770	751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48.69	48.69	46.39	47.78	46.31	-
금 (달러/온스)	1,185.50	1,277.50	1,273.75	1,288.75	1,293.50	1,295.75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9	20	21	22	23
日> 11월 최종 광공업생산 MoM (-0.5%, n/a, -0.6%)	美> Powell 연준이사 연설 中> 12월 4분기 GDP (7.3%, 7.2%, 7.3%) 12월 소매판매 YoY (11.9%, 11.7%, 11.7%) 12월 광공업생산 YoY (7.9%, 7.4%, 7.2%) 독일> 1월 ZEW 서베이 예상 (48.4, 40.0, 34.9)	美> 12월 주택착공건수(만채) (108.9, 104.0, 104.3) 日> 일본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美> 1월 예비 제조업 PMI (n/a, 54.0, 53.9) 유럽> ECB 통화정책회의 中> 1월 예비 제조업 PMI (49.8, 49.5, 49.6) 독일> 1월 예비 제조업 PMI (51.0, 51.7, 51.2)	美> 12월 기존주택매매(만채) (n/a, 505, 493) 12월 선행지수 (n/a, 0.4%, 0.6%) 유럽> 1월 예비 제조업 PMI (n/a, 51.0, 50.6) 1월 예비 소비자 기대지수 (n/a, -10.5, -10.9)
26	27	28	29	30
그리스총선(25일) 실적발표> 韓 LG화학, 삼성테크윈 美 마이크로소프트	美> 12월 내구재주문 (n/a, 0.5%, -0.9%) 12월 신규주택매매 (n/a, 45.0만, 43.8만) 1월 소비자대지수 (n/a, 95.0, 92.6) 실적발표> 韓 LG전자, LG이노텍 美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코닝, 듀폰, 화이자, P&G, 록히드마틴, AT&T, US스틸, 암젠, 애플, EA, 야후, 3M	美> FOMC 통화정책회의 (n/a, 0.25%, 0.25%) 실적발표> 韓 SK하이닉스, 넥센타이어, LG디스플레이 美 보잉, ADT	유럽> 12월 M3 통화공급 (n/a, 3.5%, 3.1%) 1월 최종 소비자 기대지수 (n/a, n/a, -8.5) 독일> 1월 예비 소비자물가지수 (n/a, -0.2%, 0.1%) 실적발표> 韓 삼성전자, NAVER, SK텔레콤, 이마트, LG상사 美 퀄컴, 페이스북, 닌텐도, 허쉬, 블랙스톤, 타임워너케이블, 포드, 아마존, 구글, 비자, 비아콤	美> 4분기 예비 GDP 연간화 QoQ (n/a, 3.0%, 5.0%) 1월 최종 미시간대 기대지수 (n/a, 98.2, 98.2) 유럽> 1월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 (n/a, -0.4%, -0.2%) 日> 12월 전국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3%, 2.4%) 12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n/a, 1.3%, -0.5%) 실적발표> 韓 현대글로비스, 삼성전기, 한국타이어, KT(31일), SK브로드밴드(31일) 美 제록스, 세브론, 마스터카드
2/2	3	4	5	6
韓> 1월 수출 YoY (1일) 1월 수입 YoY (1일) 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 (1일) HSBC 제조업 PMI 美> 12월 개인소득 12월 개인소비지수 1월 ISM 제조업지수	韓> 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日> 1월 본원통화 YoY 美>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12월 제조업수주	美> Mester 연준이사 연설 1월 ADP취업자 변동 유럽> 12월 소매판매 MoM	독일> 12월 공장수주 MoM 美> 12월 무역수지	독일> 12월 산업생산 MoM 美> 실업률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